

**‘대한민국 최초’와 함께한
건설혁명 71년**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2010년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내 건설사 중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림산업은 1939년 10월 10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부림상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건설 자재 판매회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1947년 대림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업에 진출하여,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복구사업, 60~70년대 경제개발계획, 70~80년대 중동신화와 중화학공업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경인, 경부, 호남 고속도로에서부터 서울지하철, 포항제철, 세종문화회관, 국회의사당,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독립기념관, 한국은행, 청계천, 광화문광장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 곳곳에 대림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대림의 역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였다. 현재 대림산업은 시공순위 5위의 종합건설회사로, 1962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생긴 이래 49년 연속 10대 건설사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1955년부터 56년간 한국의 100대 기업에 지속적으로 랭크되어 있는 7개 기업 중(55년간 100대기업 유지한 7개 회사: 대림산업, 현대해상, CJ, LG화학, 한화, 한진중공업, 한국전력 - 06년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하나이다.

해외 건설 외화 획득, 제 1호 기업

대림은 1966년 1월 28일 미 해군시설처(OICC)에서 발주한 베트남의 라치기아 항만 항타 공사를 87만

7000달러에 수주하고 같은 해 2월 초에 공사 착수금 4만 5000달러를 한국은행에 송금함으로써(65년 12월 최초로 해외 진출한 현대건설의 태국 고속도로 공사보다 먼저 공사선수금 획득) ‘외화 획득 제 1호’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73년 11월 사우디에 지점을 설치하고 아람코사가 발주한 정유공장 보일러 설치공사를 도급금액 16만불에 수주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중동진출에 성공’(동아 74년, 현대 75년)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대림산업은 지난해까지 사우디, 이란, UAE, 인도, 태국, 필리핀을 포함한 24개국에서 플랜트 수출, 댐, 도로, 항만, 공공주택 등의 다채로운 해외건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해양특수교량 실적 1위

대림산업은 ‘국내 해양 특수교량공사 실적에서 확고부동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교량공사 실적으로서는 건설 당시 ‘국내 최장경간(주탑과 주탑 사이가 가장 긴)의 사장교이자 세계 10대 해상교량으로 손꼽혔던 서해대교(경간장 470m)’, ‘광안대교’, ‘국내 최초의 강사장교인 돌산대교’ 등이 있다. 대림산업이 2003년에 준공시킨 삼천포대교는 순수 국내 기술로만 설계 및 시공된 최초의 사장교이며, 건교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기념비적 해상교량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4위의 현수교인 이순신대교(경간장 1545m)’와 ‘국내에서 2번째로 긴 현수교가 될 적금대교(경간장 850m)’ 국내 최초, 세계 최장 길이의 1주탑 현수교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2공구(경간장 400m)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